

제4권 (1단원 : 예수님의 비유)

(제8과) 달란트 비유

- 본문 : 마태복음 25:14-30
- 요절 :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마 25:29)
- 찬송 : 370장(새찬송가 330장), 378장(새찬송가 597장)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 ‘달란트 비유’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그것으로 장사하여 갑절의 이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회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각각 본전과 남긴 이를 주인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 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자기가 받았던 한 달란트를 도로 주인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노하여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1.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받은 달란트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름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아무 달란트도 가진 게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달란트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시간, 정상적인 사고 능력, 재능, 지식, 물질 등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혹은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처럼, 우리가 가진 달란트 역시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창조주시오 우리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보다 많거나 적은 달란트를 가진 데 있지 않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각자의 달란트를 활용치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주인의 소유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책망 들은 종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릇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저마다 받은 달란트로 이(利)를 남겨야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과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것처럼 많은 재산을 선포 맡겨준 데 대하여 감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인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들은 주인이 여행을 떠나자마자 장사를 시작하여 갑절의 이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많은 이를 남겨야 합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에 몸바쳐 헌신해야 합니다. 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골 4:5)고 하셨으니, 금쪽같은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가진 재물로써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딤후 6:17,18).

이뿐 아니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공교한 기술로써 헌신했던 브살렐, 오홀리압과 같이(출 31:1~11), 또는 음악적인 재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헌신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같이(대하 5:11~14), 우리도 가진바 재능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많은 이를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도, 적게 받은 자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것입니다.

3. 이(利)를 남겨야만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오랜 시일이 지난 어느 날, 세 종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주인과 결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나아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니, 주인은 매우 흡족해하며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본전과 함께 갑절로 남긴 이윤을 주인 앞에 내어 놓자 주인은 똑같은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도로 가지고 와서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노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주인은 그 종이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게 하고,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과 회계하였듯이, 우리 주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우리 각자와 회계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받은바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점검해 봅시다. 또 이제껏 내가 가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살펴봅시다. 받은 달란트가 많고 적음에 마음 두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갑절의 이를 남기는 데 관심을 두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